

#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 총력전

### 임실군, 옥정호 남측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 국회·중앙부처 등 전방위 설득 나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실군이 전북도 대선공약인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군은 특히 섬진강댐 건설 후 50년 넘게 개설되지 못한 옥정호 남측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을 앞세워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서고 있다.

5일 심 민 군수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군의 최대현안이자 오랜 숙원인 섬진강댐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심 군수는 이날 SOC 및 도로관련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토예산과 관계자를 만나 "섬진강댐 건설후 50여년이 지나도록 섬진강댐 남측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에 심각한 피해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낙후도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심 군수는 특히 임실군이 추진하는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이 전북도 대선공약에 포함된 가운데 그 중심인 옥정호 남측순환도로 개설은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섬진강댐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후속조치로 옥정호 남측순환도로 역시 지방이 아닌 중앙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덧붙였다.

섬진강댐 건설 이후 양안도로인 북측 순환도로는 개설됐지만, 남측 순환도로는 지난 2008년 일부 개통된 8.2km 외에 주민생활의 불편이 제일 심한 미개설 구간 15.8km이 남아 있는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2차 회의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정책변경, 재정여건 등 사업에 대한 도민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2차회의가 5일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1도지사를 비롯한 평가단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대다. 주민불편 고조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 속에서 추가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5.8km 중 2.8km만 현재 실시단계에 놓여 있다. 3km는 아직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10km 구간 개설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라는 이유로 전북도의 몫으로 남기고 있지만, 48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감당하기는 무리수가 따른다.

임실군은 천신만고 끝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됨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과 낙후지역

재정을 위한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면서 남측 순환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옥정호 남측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은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심 군수는 이날 기재부 핵심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전북도와 임실군이 미개설 구간 10km의 사업비 480억원 중 20%를 부담하는 만큼 80% 만이라도 국가가 부담해 2018년 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단계에 필요한 국비 18억원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2004년 섬진강대 재개발 사업 기본설계에 반영됐던 순환도로의 예산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기에 착공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목적댐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은 옥정호 남측순환도로 개설 문제로 수년간 끈질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중앙부처, 여야 정치권 등을 30번 넘게 찾아가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애달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실=진중영 기자

# 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공모 2개 선정

### 3년간 국비 32억 등 48억 투입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우수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형 목조 건축 부자재산업 육성지원 사업', '바이오컨버전기술기반 기술혁신형 전북 바이오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3년간 국비 32억원 등 총 48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

재산업 고도화를 위한 한국형 프리컷 결구부 개발, 편백오일 함유 우레아 캡슐 개발, 열처리 압축 편백 강화단 관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국비 16억 등 총 25억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바이오컨버전기술기반 기술혁신형 전북 바이오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전통 바이오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위해 발효미강 소재 이용 가능성 장류 제품 개발, 순창콩 곡물발효 프로 바이오티스 제품 개발 등이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국비 16억원 등 총 22억 3,000만원이 지원된다. /안재용 기자

# 도, 미세먼지 저감 대응 시·군 환경 부서장 회의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5일 도내 시·군 환경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 차원의 저감 대책 세부 사업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적극 대응기 위해 개최했다.

올해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의 계절별 특성에 따른 화학적 성분분석 원인규명 등 중장기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에 중국 황사, 충남

화력발전소 등의 오염물질이 전국 시·도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체 영향조사 등 정부차원의 연구용역 추진을 요구하고, 집중측정소를 도내에 신설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무주, 장수 등 동부권 대기오염정중소 신설 등 2018년 미세먼지 저감대책 국비 지원사업에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세부사업 중 대기·미세먼지·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강화 및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 주변 집중 청소 등을 시·군에 주문하고, 도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재용 기자

# 전북도, 114개 법인 세무조사 추진

전북도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10억원이상 부동산 취득하거나 1,000만원이상 지방세 감면 받은 법인, 자본금 10억원 및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 등을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아 도·시·군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통해

심사해 최종 114개 법인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조사일정을 법인의 의견 수렴해 상반기와 하반기 중 법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51개법인, 하반기 63개법인을 조사할 예정으로 직접방문 조사를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확대해 기업영향 최소화 및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 안전신문고, 안전사고 예방 역할 '톡톡'

### 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신고 대폭 증가... 목표관리제·봉사시간 인정 등 효과

도내 안전신문고가 안전사고 예방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요소 6,475건을 신고해 4,741건을 처리했다.

그간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안전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3월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신고

건수가 많았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4년 28건에서 2015년 2,375건, 2016년 6,209건, 올해는 현재까지 6,475건이다.

지난해 대비 안전신고가 대폭 증가한데는 올해 시행한 시·군 안전신고 목표관리제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청과 협업체 초·중·고 안전신고학생에게 봉사시간 인정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6,475건을 시·군별로 보면 전

주시가 1,436건(22.2%), 부안군이 1,039(16.0%), 군산시가 847(13.1%) 순이었다.

신고분야별로 보면 도로, 보도 등 시설 3,353건, 신호등, 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 1,062건, 생활안전 756건 등이 많게 나타났다.

안전신고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북도 응답자 695명 중 664명

(95.5%)이 만족으로 응답했다.

전북도는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크고 다수를 신고한 우수자에게는 올해부터 안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실적은 인구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북도가 전국에서 1위"라며, "이러한 추세를 연말까지 계속 유지해 목표 초과 달성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증액 확보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전북스마트쉼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전북스마트쉼센터는 5일에 호남제일고등학교 자원봉사 학생 20여명과 함께 한옥마을 일대에서 전주시민과 관광객 8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문화 조성 위한 과의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하고, 이용시간 관리를 통한 자기조절능력 향상 및 중독 예

방을 위해 자가진단, 과의존 예방안내, 스마트쉼센터 홍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현용 학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스스로 조절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진안군 공고 제 2017-313호

##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민 의사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정 면적 (㎡)	변경 면적	변경 후 면적	최 소 결정일	비고
배기	4	공공청사	백운면 백사부소	백운면 백당리 674-348	3,807	(증)3,807	-	진안군 고시 제2009-37호 (2009.06.19)	

나.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민 의사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4	백운면 백사부소	공공청사 배기	면적 3,807㎡	백운면백사부소 신축이전으로 기존위치 공공청사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군 계획시설(공공청사)에서 배기	

다. 관계도서: '계제생략'(열람장소 비치)

2. 주민 공람 및 장소

- 공람·공고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백운면사무소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주민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제출서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건설교통과(☎063-430-2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진 안 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